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익산시,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2000m³ 미만 주유소 설치비용의 40~50% 보조, 주유 노즐 최대 8기 한도 내

익산시는 관내주유소를 대상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익산시가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m³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m³ 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 설치 기한에 따라 설치비용의 40~50%를 지원하며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하여 익산시청 환경정

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익산시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의 90% 이상이 감소되어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보호는 물론 지원사업을 통한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자가격리자 위한 도서배달 서비스

불안감·우울증 등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도움... 16일부터

익산시는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도서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도서배달 서비스는 자가격리자들이 지택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도서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여받은 임시 회원번호로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ksan.go.kr>)에서 1인당 3권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책 소독기 및 소독제로 책을 소독한 이후 도서관 직원이 자가격리자 집 앞까지 배달한다. 또한 배달받은 책은 자가격리 해제 후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으며 도서관 측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납된 도서를 철저히 소독하고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자가 격리자들이 독서를 통해 불안함과 답답함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도서대출 서비스 수령시간을 당초 17시부터 20시까지로 연장하여 직장인 등 낮시간에 도서 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확대했다. 지난날 16일부터 운영된 안심 도서대출은 현재까지 4,538명이 참여해 1만3,108권의 도서가 대출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일상 속 작은 실천 '그린챌린지' 함께 해요

하림, '피오봉사단 7기' 모집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환경 보호활동에 함께할 '피오봉사단 7기'를 모집한다. '피오봉사단'은 하림 임직원과 소비자 가족으로 구성된 환경봉사단이다. 환경 정화와 동물복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에 창단해 올해로 7기를 맞았다. 올해는 필(必)환경 트렌드에 맞춰 '그린챌린지'를 테마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야외 발대식을 온라인 발대식으로 전환하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션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미션 수행을 통해 일상 속 환경 보호 생활화를 위한 '나부터 실천하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다. 5월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친환경 세계와 차이를 만드는 '그린 프로듀서 미션', 에너지 절약일지를 작성하는 '그린 다이어리 쓰기', '피오봉사단가

족 신문 만들기'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외에 하림익산 분사 '스마트팩토리 견학' 및 '하림 피오봉사단 캠프' 등 오프라인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림 피오봉사단 신청은 26일까지 네이버 폼(<https://bit.ly/3d1pQz8>)을 통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환경 보호활동에 함께할 '피오봉사단 7기'를 모집한다.

해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이상 자녀와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하림 피오봉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림 자연실록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turalharim),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harim_natural), 블로그(blog.naver.com/harim_natural), 블로그(blog.naver.com/harim_natur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군산 옥도면 말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2.9급 꽃게잡이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군산해경, '꽃게 조업분쟁' 강력 단속

불철 꽃게잡이가 시작되면서 바다에 그물 위치를 두고 조업허가 어선 간 분쟁이 늘어나 해경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군산 옥도면 말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2.9급 꽃게잡이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어선은 바다에 그물을 설치할 때 어선번호와 그물의 일련번호를 수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 거거(起居)나 조류를 따라 부유하며, 이동하는 꽃게의 특성상 조업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먼저 설치된 그물 바로 앞에 추가로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을 설치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어선의 경우에도 8.5t

급 꽃게잡이 어선과 조업 분쟁 중 두 선박 모두 해경에 상대 선박을 신고하고, 일부 선박은 위협을 가했다. 이처럼 조업 절에는 불법·편법 폄수도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어선표지판'을 바꿨다는 행위가 잇따라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11일에는 주꾸미를 잡던 어선 2척이 무허가 어선에 마치 허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가어선 표지판을 달았다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검거됐다. 조성철 서장은 "어업분쟁이 자칫 고의적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어업 질서를 바로 잡겠다. 만약 선박을 이용을 이용해 다른 선박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다른 선박의 그물을 손괴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식품진흥원, 대구의료진에 '힘내라 꾸러미' 전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윤태진, 이하 '식품진흥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의료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응원에 나섰다. 식품진흥원은 '힘내라 꾸러미'라는 응원물품을 만들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대구의료계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입주기업 제품 7가지로 구성된 '힘내라 꾸러미'는 커피류와 스낵류로 채워진 간식세트이다. 13일 오전 10시, '힘내라 꾸러미' 65개를 싣고 식품진흥원을 출발한 화물차는 오후 1시에 대구시의사회에 도착

하여 관계자에게 무사히 전달되었다. 대구시의사회 김성우 사무총장은 "식품진흥원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힘내라 꾸러미'를 먹고 더욱 힘을 내 코로나19 종식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전했다. 식품진흥원 윤태진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분연의 임무를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며 멀리서나마 진흥원 임직원이 응원을 보낸다"며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지친 의료진과 위축된 중소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식품진흥원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